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포천시연천군 후보 초청 정책토론회

개별질문 · 경제
개별질문 · 교육



김영우 후보

“외부에서 많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박윤국 후보

“특목고도 중요하지만 기존학교들을 명문고등학교로 육성해야 합니다”



패널 한희준 한신단열 대표

“경제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할 방안에 대해 밝혀주세요”

과 어떤 정책으로 우리 포천시민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김영우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배기욱

아까 공통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사항을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충북 오창에 산업과화단지 다들 아시는 지역이죠. 그 지역의 성공사례를 예로 드시면 포천은 뭐냐. 우리도 그렇게 못 할 것 뭐 있냐 그런 측면에서 물어봐 보니까 소위 말하는 경제 인프라 기반시설이 취약한 것 아니냐. 다른 기반이 취약하다. 이에 대한 대안이 있는가 하는 요지의 질문 이신 것 같습니다.

■기호 2번 한나라당 후보 김영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천과 연천을 묶어주고 있는 규제를 반드시 풀어야 된다고. 그것은 누구나 주장할 수 있는 문제고요. 저는 포천·연천이 제대로 된 경제 중심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포천·연천의 특성을 잘 파악해야 된다고. 포천·연천에 무조건 첨단산업이 들어와야 된다고. 벤처 산업이 들어와야 된다고. 무슨 단지가 조성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말고요. 현실적인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죠.

■사회자 배기욱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패널들의 공통 질문을 받아서 후보자들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공통으로 했습니다. 정제화된 질문과 답변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긴장감이 되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패널이 특정 후보를 지명해서 답변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안내 말씀 드릴게요. 두 장의 서면질문이 들어왔는데 제가 그 말씀을 빠뜨렸나요. 모든 특히 정치 분야 토론회는 공정성을 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가급적이면 본인의 성함과 상세 주소는 아니더라도 여기 게시 분들은 밝혀 주시고 해주시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사회자 배기욱

그리고 역시 질문하시고 싶은 분의 후보자 성함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답변도 제가 해서 1인당 답변 1개씩 드리는 걸로 하겠다고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자 배기욱

그러면 패널들의 개별 질문 시간이 되겠습니다. 들으셨겠지만 정치, 사회, 경제, 교육, 교통, 도시 인프라도 그 부분에 대한 말씀들을 꼭 해 주셔서 다소 후보자간 중복되는 답변도 다소는 있습니다만 다행히도 조금 조금씩 그래도 방향은 다른 관점들을 가지고 게시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유념해서 들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개별 질문 시간입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자 모시겠습니다. 한희준 대표님께서 질문 대상 후보자를 지정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패널 한희준

답변하시느냐고 수고 많았습니다. 김영우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 문제 질문을 하다가 교육, 사회, 교통 문제가 전부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포천 지역에 각박한 현실이기 때문에 한 지역에 모델을 들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의 오창 산업과화단지 아시지요. 불과 몇 년 전 만해도 이 지역은 인구 1만여 명에 달하는 면 소재지였습니다. 지금은 인구가 3만 6,000명 정도로 승격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령 인구가 1만여 명이 늘어나는 아주 훌륭한 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해외 유수한 기업들, 국내의 굴지의 기업들이 서로 입주하려고 선두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시골 면사무소 지역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적으로 포천지역에 다시 돌아와 보면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시설이 하나도 안 돼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법

패널 김만수 포천시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포천·연천에 특성화고 유치계획과 그 방안에 대해 밝혀주세요”

경제 기반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 도농복합 도시라는 특성을 잘 고려해서 어떤 정책을 펴야지 다른 데 착안을 그대로 옮겨다 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하는 요지로 말씀하시면서 이른바 균형발전을 기하는 그러한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신도시 언급하시면서 신도시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이 상대적으로 낙후되는 것을 고려한 그러한 정책도 병행해야 된다는 요지의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패널 김만수

먼저 세 분 후보님이 아까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저는 한 38년 동안 교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육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세계적으로 가장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 국민인 면에서도 교육정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현장에서 잘 발전하지 않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우리나라의 국민은 모두가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만큼 교육에 대해서 전문가들입니다. 모두가 전문가가 정책이 수립되지도 않고 여기저기 이구동성 그런 것 때문에 교육 인프라가 한쪽으로 구축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3번 무소속 후보 박윤국

먼저 우리가 저는 교육이라는 것을 정치가 먼저 개입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 자체가 앞으로 정치인들이 뒤에서 후원하고 지원하는 그런 것이 되고, 교육은 역시 교육의 전문가들이 교육에 대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야 된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포천의 특목고등학교, 또 연천의 특목고등학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현재에 있는 기존에 학교들을 명문 고등학교로 만드는 데 먼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학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보통 “밭을 낳으면 제주도도 보내고, 사람을 낳으면 서울로 보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재들을 포천·연천의 인재들 중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다른 인재들을 새롭게 인재들 만들어 나가게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다만, 저는 재임시절에 이런 폐교 학교를 통해서 문화 예술 그리고 체육, 그리고 우리는 섬유나 가구나 이런 공업 분야에 대한 이런 특목 고등학교들을 유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동두천에 외국어 고등학교가 있고 옆에 남양주에 외국어 고등학교가 있다고 우리도 외국어 고등학교 유치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 나갈 것인가, 또 교육법이 잘못 돼 있다면 교육법을 개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것부터 차츰을 해야 되고, 또는 포천고등학교, 일동고등학교에다 지속사를 건립해 준 이유가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보라. 운동하는 사람 열심히 운동하고, 또 문화예술하는 사람 문화예술하고, 체육하는 사람 체육하는, 교육이라는 자체는 특정한 사람을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교육시키는 것이 바로 교육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만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다른 것들도 길러내는 것도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